| 현불 논단 |

어긋난 욕망과 'n번방 사건'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집단 性착취 영상거래 사건
피해자들 '노예'로 지칭하며
윤리 · 상식 벗어난 촬영 강요

피해 여성 상당수가 미성년
수위 높은 영상에 돈 지불

공동체 파괴하는 악한들에
부처님 "키질해 날려버려라"
法 사회화 운동 필요 높아

'집단 성(性)착취 영상거래 사건.'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성적 욕망의 노예' 들이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 박사방 사건' 에 대한 명칭이다. 이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과 박사방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을 말하는데, 피해자들을 '노예' 라고 부르며 상식을 벗어난 촬영을 강요한 반인륜적인 사건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가해자 일당들이 관공서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얻게 되는 방식이 디지털 범죄 그 자체이다.

먼저 트위터 해킹 코드를 피해자에게 보내 해킹하고 이어서 해킹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등을 확보한 후,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로 협박하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정리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킹으로 인한 성착취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보태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여성 가운데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엽기적이고 노출 수위가 높아질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구조에 가입자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세상이 불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연소경〉(S35.28)에서 부처님은 한 산의 정상에서 "눈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 코가 불타고 있다. 혀가 불타고 있다. 몸이 불타고 있다. 마음이 불타고 있다. 탐욕과 증오와 무지의 불로 불타고 있다. 그리고 슬픔과 한탄과 고통과 비탄과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라고 하며 대중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륜성왕 사자후경〉(D26)에서 "도도한 인간의 삶의 흐름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법(dhamma)이다. 법을 따를 때 인간은 증장하고 법을 거스를 때 인간은 타락한다"고 하면서 그 법이란 삿된 음행 등을 금하고 열 가지 유익한 업의 길(十善業道)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건이 커지자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면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 "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을 수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처님도 이런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숫타니파타〉(280, 281)에서 부처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 버려라" 라고 단언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그치라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욕망에 대한 제어법으로 제시한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누이 또래의 여인은 누이처럼, 어린 여인은 딸처럼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지 실천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결국, 법사를 찾게 하고, 가까이 앉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게 하고,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는 법의 사회화 운동이야말로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저당 잡힌 이들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행복 백신'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어난 선한 마음은 증장하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함이 일어나고 선심이 증장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위기에 처한 요즘이 아닐까 한다.

내가 현재 지도법사로 있는 병원의 공공의료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까요? 병원에 의료진들이나 환자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전화기를 통해 전해진 그의 간절함이 나의 가슴에도 잔잔한 물이랑을 일게 했다.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사느라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야하는 어려운 상황에다 불안까지 가중되는 시점인데, 가장 최전선인 병원에까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은 심각한 현실감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스님,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기부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할 것 같거든요." 라고 덧붙이는 그의 말은 그대로 절박함과 감동으로 나의 마음에 전달돼 왔다.

절 앞마당서 나무 전지작업을 하며 답답함을 달래고 있을 때, 마침 신도 거사님이 사찰에 잠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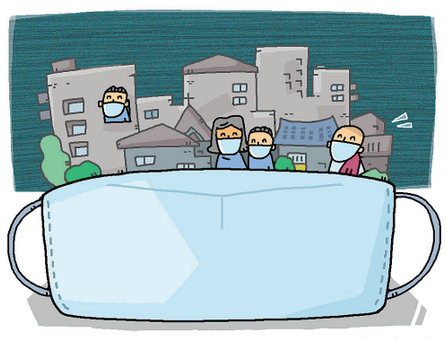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했고 자연스레 이런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다. 거사님은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직원들에게는 천마스크를 제공했기에 마침 비상용으로 준비한 200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있다면서 흔쾌히 200장의 마스크를 당장 보시했다. 정말 뜻밖이었고 그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신도들이 마스크를 갖고 사찰로 한 두 명씩 모여들었다. "스님, 작지만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1주일 만에 무려 1,328장의 마스크가 모아졌다. 정말 기적과 같았다. 한 사람의 선한 첫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계속 증장되는 이 현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상황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행복바이러스, 치유의 백신임을 목격하게 되는 환희의 순간인 것이다.

봉사자들과 함께 공공의료팀에 기부받은 마스크를 전달했다. 마스크 상자를 받은 병원관계자들의 눈빛이 촉촉해짐을 느꼈다. 서로의 진실함이 통한 것이리라.

병원은 현재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출입구 문을 지키는 일서부터 자질구레한 일까지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 휴일도 반납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정말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가슴깊이 느껴졌다.

그리고 함께한 봉사자들 또한 신심을 일으키는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따뜻했습니다"라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전하는 봉사자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걱정과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위기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하루빨리 사라지고 평온과 해방감이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길 기원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서로 더욱 노심초사하자

코로나19, 그것은 이제 두려운 일상이면서 인류의 제일공안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인류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다시 네가 나를 무너뜨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공업의 시절. 이 거짓말 같은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하 수상한 시절에서 그래도 다시 봄을 본다. 돌아온 꽃들과 훈훈한 바람으로 하루하루가 새롭다. 달라진 아침과 저녁, 노을의 온도, 하늘의 빛깔까지 하나하나가 새롭기 그지없다.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좋은 시절이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멀찍이 걸어야 하고, 손을 내밀 수도 잡아줄 수도 없다. 우리는 결코 좋은 시절일 수 없다. 거짓말 같은 주검들, 거짓말 같은 죽음 옆에서 거짓말처럼 하루를 살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거짓말 같은 하루를 산다. 좀처럼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닥친 어려움이라면 '곤란함' 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함께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오늘. 우리는 더욱 더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가 되지 못하고 너와 나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이 공업의 시절을 여법하게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손을 잡을 수 없는 대신 서로의 눈에서 위로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멀찍이 걸어야 하는 만큼 서로에게 더욱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봄을 함께 지나가자.

'사경장' 무형문화재 지정 기대

'사경(寫經)' 은 불교 경전을 필사해 널리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 기원도 오래돼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세기 이후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경은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됐다. 특히 불교가 국교로 공인된 고려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사경 전문 기관을 운영하며 사경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등 금자(金字) · 은자(銀字) 형식의 사경이 많이 제작됐고, 충렬왕 대에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들어서며 사경 문화는 쇠퇴하게 됐다.

단절됐던 고려 사경을 복원한 사람이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이다. 그는 40여 년 동안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로 승화시켰다.

사경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여 가지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서예 · 한문 · 불교 교리 · 회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도 필수다. 사경이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재청이 4월 1일 불경을 쓰는 기술을 가진 장인인 '사경장(寫經匠)' 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 원장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700년 간 단절됐던 사경을 복원 · 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달여 예고기간을 거친 후 심의를 통과하면 '사경장' 은 정식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사경장' 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지길 기원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